

한국인의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 관계

이형하*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People's Social Capital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Hyoung-Ha Lee*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인의 사회자본의 수준과 다문화 수용성의 수준을 파악하고, 사회자본의 하위요소(신뢰, 호혜성, 참여)와 다문화 수용성 요인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회자본의 하위요소들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 어떤 사회자본을 더 강화해 나가야 하는지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회적 자본'과 '다문화 수용성' 자료는 2010년 제8차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이하 KGSS)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대($F=28.18$, $p<.001$)가 낮아질수록, 학력($F=15.49$, $p<.001$)이 높아질수록, 가구 총소득($F=8.85$, $p<.001$)이 높아질수록 사회자본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성($t=9.98$, $p<.01$)일수록, 연령대($F=27.29$, $p<.001$)가 낮아질수록, 학력($F=28.99$, $p<.001$)이 높아질수록, 가구 총소득($F=11.92$, $p<.001$)이 높아질수록 다문화 수용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사회적 자본 요인 중 '신뢰'가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Keywords : 사회자본, 다문화 수용성, KGSS, 신뢰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in order to measure the level of Korean people's social capital and their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factors of social capital(trust, reciprocity, and participation) and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Furthermor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ve influence of the sub-factors of social capital on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to suggest which social capitals should be reinforced. Data on 'social capital'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used in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the data of the 8th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in 2010. The

•제1저자 : 이형하 •교신저자 : 이형하

•투고일 : 2014. 9. 1, 심사일 : 2014. 9. 15, 게재확정일 : 2014. 10. 10.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results of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capital was lower with increase in age ($F=28.18$, $p<.001$), and higher with increase in academic qualification ($F=15.49$, $p<.001$), and total household income ($F=8.85$, $p<.001$). Second,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was higher in men ($t=9.98$, $p<.01$) and lower with increase in age ($F=27.29$, $p<.001$), and higher with increase in academic qualification ($F=28.99$, $p<.001$), and total household income ($F=11.92$, $p<.001$). Third, among the three social capital factors influencing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trus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Based on these results were suggested various strategies for enhancing Korean people's multicultural acceptance.

▶ Keywords : Social Capital, Multicultural Acceptanc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Trust

I. 서론

다문화 교육의 대표적 학자인 뱅크스(Banks, 2008)는 '어떤 시민을 길러낼 것인가?'의 문제가 다문화 교육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다양성이 증대되는 다문화 시대의 시민은 기존의 법과 관습을 준수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보다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전환적 시민(transformative citizen)이라는 것이 뱅크스의 견해이다.[1] 킴리카(Kymlicka, 2007)는 이러한 다문화 사회에 지지적이고 개입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의 시민을 다문화 시민(intercultural citizen)이라고 부른다 하였다.[2]

그렇다면 다문화 시민이 가져야 할 전환적 시민의 태도에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이는 자신과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문화만이 옳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열린 사고,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인 이주민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즉,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서로 다른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로 '다문화 수용성' 태도가 필요하다.[3]

한편, 사회자본은 동일한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의 수많은 일상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창출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자본은 개인이나 사회구조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작용에서 나타난다.[4] Putman(1995)은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신뢰와 협동능력이 지역사회의 공유된 가치와 규범을 통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시민들간의 네트워크 형성, 신뢰, 호혜성의 규범 등을 바탕으로 공동

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5][6]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은 어떤 관계를 갖는가?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을 다루는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다만, 김혜선(2014)의 연구가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을 다루는 직접적인 연구이다.[5] 서울특별시 시민을 대상으로 서베이(2011) 분석결과, 사회신뢰, 호혜성의 규범, 교량형 연결망은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사회자본과 지역사회통합(community integration)에 대한 연구결과,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핵심요인이라고 하였다.[7][8] 이렇듯 사회자본은 다문화 수용성이나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국내 거주 이주민이 156만명 시대가 도래했고, 2030년이면 이주민 500만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대비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9] 이러한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언어를 가진 민족집단의 이동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동반한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 따라서 성숙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성원들간의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로 대변되는 사회자본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연구대상은 특정 지역사회에 국한된 연구가 아니라 전국단위의 표집을 통해 한국사회 저변에 자리한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2010년 자료를 활용해 한국인의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한국사회의 구조 및 변화 연구나 사회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2003년부터 매년 시행되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시계열 조사이다. 2010년 제8차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

특별 주제모듈에는 국내 이주민 설문 문항이 추가되었다. 즉, 국내 이주민 모듈에서는 국적 취득 요건, 국가정체성, 이주민 사회통합, 외래이주민구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및 호감도, 이주민자 관리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사회자본의 수준과 다문화 수용성의 수준을 파악하고, 사회자본의 하위요소와 다문화 수용성 요인과의 관계를 규명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자본의 하위요소들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 어떤 사회자본을 더 강화해 나가야 하는지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1. 사회자본

사회자본에 대한 학문적 연원(root)을 거슬러 그 형성과정의 흔적을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Hanifan(1916)이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주창하였다는 데는 학자들간에 대체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는 듯하다. 그녀는 신뢰, 우정, 호혜적 감정 등을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보면서, 지역사회의 교육에서 참여가 지닌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1] 그 후 사회자본은 Bourdieu, Coleman, Burt, Putnam, Portes 등에 의해 보다 광범위하게 발전하였다.[12][13]

사회자본은 행위자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 아니라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속에 내재하고 있는 자본이다. 즉 둘 이상의 행위자가 맺고 있는 관계라는 분석단위의 특성이 사회자본을 다른 형태의 자본과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자본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적 자원(personal resources)'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관계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social resources)'이다.[14] 예컨대 정보, 아이디어, 지원 등과 같은 사회적 자원 또는 자본들은 물리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는 달리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하여 얻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social)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자본은 다양한 학문에서 서로 다른 시각과 초점에 따라 연구되어 온 까닭에 개념화 작업이 용이하지 않다. 이에 따라 사회자본의 개념을 둘러싼 학문이나 학자들 간의 시각이나 관점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11]

첫째, 사회자본을 공동체적 관점(communitarian view)에서 보는 시각이다. 이 시각은 일정한 지역사회 내에 있는 클럽이나 결사체와 같은 집단들의 밀도와 수를 중시하며, 기본적으로 사회자본을 긍정적으로 또한 많을수록 좋은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그러나 이 관점은 폐쇄적인 지역사회나 네트워크가 고립되어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사회자본의 역기능적 측면을 간과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둘째, 사회자본을 네트워크 관점(networks view)에서 보는 시각이다. 이 시각은 조직적 실체 간에 수평적 결사체와 마찬가지로 수직적 결사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시각은 사회자본이 구성원들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복종과 몰입을 요구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자본을 제도적 관점(institutional view)에서 보는 시각이다. 이 시각은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시민사회의 생명력이 주로 정치적·법적·제도적 환경의 산물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제도적 관점에서 보자면 사회자본의 축적에는 자유나 권리와 같은 개념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개념들이 정부에 의해 확보되어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관료제가 이들을 구축하는 데는 수십년이 걸릴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넷째, 사회자본을 상승적 관점(synergy view)에서 보는 시각이다. 이 시각은 네트워크 관점과 제도적 관점을 통합한 관점이다. 이 시각은 좋은 거버넌스(governance)와 높은 수준의 사회자본을 지닌 사회에는 보완성이 존재하며, 또한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질서 간에도 보완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에 있어서도 학자들마다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으나 대체로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 참여 등이 강조되고 있다.[4]

첫째,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는 네트워크이며, 이는 사회자본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이다. 사회자본은 개인 간, 개인과 집단 간,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며, 상호작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사회구조를 구성하게 해준다.

둘째, 신뢰는 사회자본의 한 구성요소로 간주되기도 하며, 사회자본의 결과로 여겨지기도 한다. 신뢰는 사람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그 관계 속에 존재하며, 신뢰가 있음으로 해서 관련 행위자들은 서로 협동, 감시, 통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사회자본의 또 다른 구성요소로는 상호 호혜성을 들 수 있다. 지금 당장의 보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보답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즉 다른 사회 행위자들 역시도 협력적인 행위에 응답하여 호혜적인 행위를 할 것이라는 믿음이 제도적으로 형성되면서 무임승차의 가능성을 낮춰주고 공익을 위해서 행동하도록,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다는 것이다.[5]

이에 더하여 Putman(1995)은 참여를 사회자본 효과의 구체적인 지표로서 자발적인 결사체 참여인 시민참여와 정치참여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리하여 개념화하였다.[6] 사회참여란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다른 구성원들 복지를 고려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나 수행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회자본의 개념에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사회) 참여 등이 중요한 사회자본 요소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자본 측정의 구조적 접근으로서 네트워크를 조작화 하는 경우에는 사회자본의 형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연결망의 크기, 자원의 종류, 자원의 양, 접근성 등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개념화하여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측정도구의 복잡성이 문제가 되는 실정이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신뢰, 호혜성, 참여를 중심으로 분석해 나갈 것이다.

2. 다문화 수용성

이주의 증대는 단지 이주자들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들을 받아들이는 한국사회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 동질성에 기초한 평등 개념을 넘어서 다양성과 차이를 관용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가치와 사회통합의 원리를 한국사회가 어느 정도 수용하고 소화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제기될 시대적 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가장 심층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 즉 다른 인종·민족과의 공존 또는 갈등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즉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

이처럼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급증에 따른 다문화 경향성이 진전되면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담론을 둘러싼 이론적·경험적·정책적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혈통에 의한 단일 민족정체성이 강하고 다문화사회 또는 다문화주의를 위한 제도적 조건이 지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근래의 다문화 현상을 일반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가의 문제는 많은 학문적·실천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최근 이에 대한 실증연구들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3][15]

다문화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은 다양성과 이질성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요하는 동시에 공존과 조화라는 가치의 수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민족인종과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로 규정하거나, 서로 다른 인종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로 이해하기도 한다.[16][17][18][19]

한편,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을 채택하는 연구들은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 사회적 거리감, 국민정체성 등 기존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들을 하위요소로 포함시키면서 더 나아가 다문화적 가치에 수용적인 태도를 포괄적인 상위 개념으로 정립하려는 접근을 취한다.[4] 넓은 의미의 다문화수용성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서로 다른 인종·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16]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민족인종과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를 다문화 수용성으로 폭넓게 정의하기도 한다.[17]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한국인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으며, 법과 제도 변화의 필요성, 외국인 이주자 지원 정책 필요성 등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나, 가까운 이웃집단으로 수용하는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수용성에서 세대별, 계층별 차이도 나타났다.[2][4] 즉 연령이 어릴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고, 최상층이 중산층에 비해 오히려 더 배타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심리학적 요인을 고려한 김경호(2013)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경우 문화간 감수성이 높고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20]

이외에도 Facchini와 Mayda(2006)는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다. 즉 노동시장경쟁(labor market competition) 가설에 의하여 이민자들이 해당 국가의 자국민에 비하여 어떤 기술을 지니고 어떤 직종으로 진출하는가에 따라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정부가 이민자들을 위하여 마련하는 정책 집행에 요구되는 세율이 개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2]

3.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과의 관계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직접 다룬 연구 결과로 김혜선(2014)의 연구가 주목된다.[5] 이 연구는 2011년도 '서울 서베이'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자본의 하위요인인 사회신뢰, 호혜성과 규범, 교량형 연결망 등은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공공기관

신뢰, 결속형 연결망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제한된 연구결과로 인해 다문화 배제와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 KGSS 자료를 활용한 사회자본의 신뢰요인 중 불공정과 다문화 수용성의 부정적인 성향인 다문화 배제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 일반인이 불공정하게 대우한다는 태도를 지닌 개인일수록 다문화 배제 태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Floack 등(2003)이 주장한 제한된 직업, 지위, 권력 등을 둘러싼 상대적 박탈감(사회적 부정의)이 이민자들에 대한 수용국민의 태도에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21][22] 둘째, 200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 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황정미 외(2007)의 연구결과, 개인적이고 참여적 시민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일수록 이민자의 보편적 권리를 더욱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즉, 법적 지위로서의 시민이 아니라 바람직한 가치를 실천에 옮기는 활동적인 시민이 타자의 권리에 더 수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회적 자본과 다문화 수용성 자료는 2010년 제8차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이하 KGSS)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한국사회의 구조 및 변화 연구나 사회기초 자료를 생산하고자 2003년부터 매년 시행되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시계열 조사이다. KGSS는 한국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기초 통계 원자료(raw data)의 생산 및 확산을 위해 시행되는 연차적 대단위 전국표본조사(national sample survey) 사업으로서, 미국 시카고대학교 NORC(National Opinion Center)의 GSS(General Research Center)를 기본 모형으로 설계되었다.

KGSS 자료의 구성은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변수, 반복 핵심질문,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 연차적 주제모듈 변수, 특별주제모듈 변수, EASS(East Asian Social Surveys) 주제모듈 변수로 구성되어있다. 2010년 제8차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 특

별 주제모듈에는 국내 이주민 설문 문항이 추가되었다. 즉, 국내 이주민 모듈에서는 국적 취득 요건, 국가정체성, 이민자 사회통합, 외래이주민구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및 호감도, 이민자 관리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10]

표본추출방법은 다단계 지역 확률 표본 추출법(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을 사용하였으며 표본추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최종 표집블럭 수를 200개로 한정하고 이를 1차 표집단위인 전국의 광역시도 인구수 분포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2차 표집단위인 읍면동을 각 광역시도에 배분된 수만큼 인구비례확률표집 원칙을 적용하여 무작위로 추출한다. 추출된 각 읍면동으로부터 한 개의 최종 표집 블록(동의 경우에는 통/반, 면의 경우에는 리)을 무작위로 선정한다. 선정된 통/반, 리에서 표집원(sampler)이 가구표집틀을 직접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각 통/반, 리로부터 모두 12~13개의 가구를 무작위로 표집한다. 마지막으로 표집된 가구 내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 가구원들의 리스트를 작성한 후, 이들 가운데 태어난 월일이 가장 늦은 가구원을 최종 면접대상자로 선정한다.[10] 이러한 엄격한 절차를 통해 회수된 설문지 중 유효한 설문지는 1,576부(최초 표본수 2,500부)로서, 회수율은 63.04%이다.

모집단의 지역별 분포, 최초표본수, 표본블럭수, 유효사례수,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및 모집단과 표본분포의 차이 등을 상세히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 모집단의 지역별 분포, 최초 표본수, 유효 사례수의 지역별 분포
Table 1. Regional distribution of the population, the first sample size, the distribution of the local number of valid cases

지역	모집단의 지역별 분포1)(%)	최초표본수 2)	유효사례수	유효사례 지역별 분포(%)
서울	20.5	513	300	19.0
경기	23.0	575	360	22.8
인천	5.4	137	78	4.9
강원	3.0	75	42	2.7
제주	1.1	25	17	1.1
충북	3.1	75	53	3.4
충남	4.1	100	68	4.3
대전	3.0	75	52	3.3
전북	3.7	100	70	4.4
전남	3.8	100	71	4.5
광주	2.9	75	51	3.2
경북	5.4	137	83	5.3

대구	5.0	125	75	4.8
부산	7.1	175	113	7.2
울산	2.2	50	32	2.0
경남	6.5	163	111	7.0
전체	100.0	2,500	1,576	100.0

주 : 1) 2010년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2) 비율에 의해 배정된 지역별 추출 표본수

2. 주요변수의 측정

2-1. 종속변수 : 다문화 수용성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다문화 수용성이다. 다문화 수용성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이주민을 사회공공체 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가로 개념화하여 측정한다. 즉,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 수용은 이주민들에게 한국인과 동등한 기본권의 인정, 출생에 의한 국적 부여,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문화 수용성 척도는 5점척도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607로 나타났다.

2-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변수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인 성별, 연령대, 학력, 가구 총소득 등이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사회자본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으나 대체로 신뢰, 호혜성, 참여 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과 타인이 나를 이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려는 믿음에 대한 신뢰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호혜성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친구, 직장동료, 이웃 등이 얼마나 자주 도움을 주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참여는 지난 5년 동안 환경단체에 기부하거나 서명하기, 집회에 참여하기 등의 자발적 사회참여 활동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자본 척도는 호혜성 3문항(5점척도), 신뢰 2문항(5점척도), 참여 3문항(2점척도)이며, 호혜성 척도의 신뢰도는 .749이며, 신뢰와 참여의 신뢰도는 각각, .565, .508로 비교적 낮게 분석되었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및 주요 변수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응답자의 성별 분석결과 남자 744명(47.2%), 여자 832명

(52.8%)이었다. 연령대는 20대이하 295명(18.7%), 30대 370명(23.5%), 40대 360명(22.8%), 50대 219명(13.9%), 60대 이상 326명(20.7%)이었다. 학력은 무학 67명(4.3%), 초등학교 졸업 153명(9.7%), 중학교 졸업 139명(8.8%), 고등학교 졸업 475명(30.1%), 대학(원) 졸업 500명(31.7%)이었다. 가구 총소득은 200만원 미만 406명(25.8%), 200만원~300만원미만 215명(13.6%), 300만원~400만원 미만 240명(15.2%), 500만원 이상 341명(21.6%)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Table 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구분	빈도(명)	백분율(%)	비고	
성별	남자	744	47.2	
	여자	832	52.8	
연령대	20대 이하	295	18.7	평균 45.21세 (표준편차 16.56)
	30대	370	23.5	
	40대	360	22.8	
	50대	219	13.9	
	60대 이상	326	20.7	
학력	무학	67	4.3	
	초등학교졸업	153	9.7	
	중학교졸업	139	8.8	
	고등학교졸업	475	30.1	
	대학(원)졸업	500	31.7	
가구 총소득	200만원 미만	406	25.8	평균 368.23만원 (표준편차 380.72)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215	13.6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240	15.2	
	4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177	11.2	
	500만원이상	341	21.6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사회자본 요인 중 '신뢰' 평균 2.93점(5점만점, 표준편차=.88), '호혜성' 평균 2.19점(5점만점, 표준편차=.89), '참여' 평균 .08점(1점만점, 표준편차=.18)로 낮게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성의 평균도 2.99점(5점만점, 표준편차=.45)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의 평균
 Table 3. Average of social capital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구분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사회자본	신뢰	1493	1.00 5.00 .88
	호혜성	1550	1.00 2.19

	참여	1148	5.00	.89
			0.00	.08
다문화 수용성		1567	1.00	2.99
			5.00	.45

2.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 차이

2-1. 사회자본의 차이 검증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성별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t=.81, p>.05$)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대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F=28.18, p<.001$)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회자본이 낮아졌고,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F=15.49, p<.001$)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자본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 총소득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F=8.85, p<.001$)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가구 총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자본도 높아졌고, 특히 가구 총소득이 월평균 300만원 이상 ~ 400만원 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
Table 4. Differences in social capital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값
성별	남자	12.60	3.52	.81
	여자	12.78	3.28	
연령대	20대 이하	14.29	3.30	28.18***
	30대	12.87	3.18	
	40대	12.70	3.19	
	50대	12.17	3.43	
	60대 이상	11.17	3.27	
학력	무학	11.56	3.19	15.49***
	초등학교졸업	11.25	3.40	
	중학교졸업	11.66	3.19	
	고등학교졸업	12.60	3.23	
	대학(원)졸업	13.41	3.36	
가구 총소득	200만원 미만	11.86	3.42	8.85***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12.60	3.32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13.38	3.38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12.93	3.29	
	500만원이상	13.34	3.21	

$p<.001$ ***

2-2.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검증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성별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t=9.98, p<.01$)가 나타났다. 즉, 남자의 다문화 수용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F=27.29, p<.001$)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낮아졌고,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F=28.99, p<.001$)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 총소득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F=11.92, p<.001$)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가구 총소득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도 높아졌고, 특히 가구 총소득이 월평균 300만원 이상 ~ 400만원 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Table 5. Differences in multicultural acceptance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값
성별	남자	3.04	.45	9.98**
	여자	2.96	.46	
연령대	20대 이하	3.12	.39	27.29***
	30대	3.09	.42	
	40대	3.02	.43	
	50대	2.93	.45	
	60대 이상	2.79	.49	
학력	무학	2.77	.42	28.99***
	초등학교졸업	2.78	.47	
	중학교졸업	2.79	.56	
	고등학교졸업	2.98	.45	
	대학(원)졸업	3.10	.40	
가구 총소득	200만원 미만	2.87	.46	11.92***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2.99	.46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3.09	.44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3.04	.45	
	500만원이상	3.05	.42	

$p<.01$ ** , $p<.001$ ***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회귀분석의 선행분석으로서 다중공선성의 진단과 독립변수간의 전반적 관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은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각 독립변수간 상관관계의 정도는 .60이하로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회귀분석시 VIF 검사를 수행한 결과 VIF 값(최소 1.058 부터 최대 1.805)이 1과 2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6.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Table 6. Correlation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013	1										
3	.158 **	-.641 **	1									
4	.064 *	-.280 **	.479 **	1								
5	-.086 **	-.386 **	.264 **	.120 **	1							
6	.079 **	-.253 **	.157 **	.069 **	.450 **	1						
7	-.007 **	-.244 **	.174 **	.086 **	.470 **	.617 **	1					
8	.093 **	-.062 **	.116 **	.132 **	.109 **	.067 **	.056 **	1				
9	-.112 **	.066 **	-.061 **	.030 **	-.003 **	-.008 **	.016 **	.303 **	1			
10	.014 **	-.070 **	.178 **	.146 **	.088 **	.049 **	.071 **	.099 **	.065 **	1		
11	.030 **	.028 **	.058 **	.108 **	.053 **	.054 **	.067 **	.082 **	.057 **	.259 **	1	
12	.033 **	.062 **	.019 **	.036 **	-.023 **	-.011 **	-.012 **	.014 **	.006 **	.182 **	.184 **	1

1.성별 2.연령대 3.학력 4.가구총소득 5.호혜성1 6.호혜성2 7.호혜성3
8.신뢰1 9.신뢰2 10.참여1 11.참여2 12.참여3
p<.01**, p<.001***

4. 회귀분석 결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성별'(B=.078, p<.05), '연령대'(B=-.168, p<.001), '학력'(B=.166, p<.001), '신뢰'(B=.077, p<.05)가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7. 참조). 즉, 남성일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사회적 자본요인 중 '신뢰'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서울 서베이' 자료를 사용한 김혜선(2014)의 연구결과 일치하고 있다. 다만, 김혜선(201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인 '신뢰'뿐만 아니라, '호혜성', '연결망(네트워크)' 모두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표 7.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Table 7. Regression analysis of the impact on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B	B	t
(상수)	2.813		27.752***
성별1)	.071	.078	2.538*
연령대	-.005	-.168	-4.251***
학력	.049	.166	4.095***
월평균가구 총소득	.001	.037	1.110
호혜성	.021	.041	1.259
신뢰	.040	.077	2.499*
참여	-.025	-.011	-.335
F=19.31*** R2=.125			

1) 성별은 더미변수임(여성=0, 남성=1)
p<.01**, p<.001***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2010년 자료를 활용해 한국인의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한국인의 사회자본의 수준과 다문화 수용성의 수준을 파악하고, 사회자본의 하위요소와 다문화 수용성요인과의 관계를 규명할 목적이었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자본은 전반적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사회자본요인 중 '신뢰' 평균 2.93점(5점만점, 표준편차=.88), '호혜성' 평균 2.19점(5점만점, 표준편차=.89), '참여' 평균 .08점(1점만점, 표준편차=.18)로 낮게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성의 평균도 2.99점(5점만점, 표준편차=.45)이었다.

둘째, 성별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t=.81, p>.05)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회자본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28.18, p<.001). 학력이 높아질수록 사회자본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15.49, p<.001). 가구 총소득이 높아질수록 사회자본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8.85, p<.001).

셋째, 남자의 다문화 수용성이 유의미(t=9.98, p<.01)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다문화 수용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27.29, p<.001). 학력이 높아질수록 다문화 수용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28.99, p<.001). 가구 총소득이 높아질수록 다문화 수용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11.92, p<.001).

넷째, 회귀분석 결과, 남성일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문화 수용성에는 연령대($B=-.168, p<.001$)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또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사회적 자본 요인 중 '신뢰'가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대의 부(-)적인 영향력과 학력의 정(+)적인 영향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력과 소득과 같은 개인의 가치요인은 다문화 배제 태도가 높아진다는 맹진학(2009), Leong(2008)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학력과 소득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하면서 이주민들과 노동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하지 않을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낮아지는 것은 우리사회의 오랜 단일민족에 대한 전통과 타문화 배제 경향을 반영한 결과이다. 따라서 50대이상의 중고령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포함한 성숙한 세계시민 교육 프로그램개발과 보급이 필요한 시점이다.[22][23] 이에 더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문화적 환경과 문화를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 소개하고 있는 다문화관련 센터를 개방하여 지역주민이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자본 요인 중 '신뢰'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Herrerros & Criado(2009)는 사회신뢰의 사회접착제 기능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수용함에 있어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우리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함을 다각적으로 시도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24][4] 이와 더불어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과 그 자녀를 위한 보호요인으로써 그들을 향한 '사회심리적 지지'와 '한국사회에 적극적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25][26][27] 이러한 지지와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주민 자녀에 대한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초중등 정규 교과과정에도 가칭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같은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 KGSS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로 특정지역이나 대상에 국한한 분석의 한계를 넘어선 전국적 데이터 분석결과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사회자본 수준과 다문화 수용성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화의 한 축인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대비한 건강한 사회자본의 강화와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찾는 데 연구의 의의가 높다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첫째, 사회자본의 측정변수에 정치·지역

사회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를 측정하지 못하였고, 사회자본의 주요 변인인 연결망(네트워크)에 대한 측정을 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둘째,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 요인인 '사회적 거리감', '다문화 배제' 요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적용을 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참고문헌

- [1] J. A. Banks,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4th ed.)," Pearson Edu, Inc., 2008
- [2] W. Kymlicka, "Multicultural Odysseys: Navigating the New International Politics of Divers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3] ijyoon, and yhsong, "South Koreans' Perceptions of National Identity and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Vol. 23, No. 1, pp. 143-192, May 2011.
- [4] smhong, jshwang, and jsryu, "A Study on the Community Participation of Social Capital," The Korean Journal of Northeast Asia Studies, Vol. 59, pp. 291-219, June 2011.
- [5] hskim,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e Graduate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4.
- [6] R. D. Putman,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Vol. 13, pp .65-78, Jan. 1995.
- [7] ysjang, jhjeong, and mscho, "Social Capital and Social Conflicts in Korea: The Multiple Facets of Social Capital," Survey Research, Vol. 10, No. 2, pp. 45-69, May 2009.
- [8] twum, "Relationships of Social Capital, Community Integration, and Depression in Female Saeteomin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2, No. 3, pp. 92-121. Sep. 2012.
- [9] Gyeonggi Research Institute, "Survey and Policy Direction on Multi-Culturalism of Gyeonggi-Do Citizens," 2013.
- [10] sokim et al.,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2010," AEAS Survey Research Center.

- [11] trkim, and hgahn, "Social Capital and Volunteerism," Jipmoondang, 2011.
- [12] M. Woolcock,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Vol. 27, pp. 1-208, 1998.
- [13] shlee,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of Migrant Women in Korea," The Graduate of Sociology, Ewha Womans University, 2013.
- [14] L. Lin,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5] swyoon, and sdkim, "An Empirical Analysi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Korea: Focusing on the Effects of "Social Values","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36, No. 1, pp. 91-117. Apr. 2010.
- [16] ijyoon et al., "Awareness of migrant workers and multicultural society of Korea," Korean Studies Information, 2010.
- [17] jmhwang et al., "Research on ethnic cultural orientation of the Korea Societ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s, 2007.
- [18] jmhwang, "Analysi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Korea - from the perspective of new politics of membership,"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53, No. 4, pp. 152-184. Dec. 2010.
- [19] mschoi, "An Analysis of Differences and Effect Factors i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between Teachers and Adolescents," The Graduate of Education, Dong-A University, 2013.
- [20] khkim, "Effects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on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social work students : Mediating effect of social familiarity to foreigners," Korea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Vol. 22, pp. 77-104. June 2013.
- [21] A. Florack, U. Piontkowski, A. Bohman, T. Balzer, and S. Perzig, "Perceived intergroup threat and attitudes of host community members toward immigrant acculturatio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143, No. 5, pp. 633-648. Oct. 2003.
- [22] jhmeng, "Determinants of the Korean Multicultural Exclusive Attitude: An Analysis Using Hierarchical Linear Model, Social Welfare Policy," Vol. 36, No. 3, pp. 323-348. Sep. 2009.
- [23] C. H. Leong, "A multilevel research framework for the analyses of attitudes toward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e Relations, Vol. 32, No. 2, pp. 115-129, 2008.
- [24] F. Herreros, and H. Criado, "Social Trust, Social Capital and Perceptions of Immigration," Political Studies, Vol. 57, No. 2, pp. 337-355. June 2009.
- [25] mgjeong, "Multicultural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or the Multicultural Children's Cognitive Abilities and Autonomy about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18, No. 12, pp. 189-196. Dec. 2013.
- [26] smim, jsshin, and jhson,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Adolescents's School Resilience for The Multicultural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The Korea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17, No. 10, pp. 175-183. Nov. 2013.
- [27] hhlee, "A Qualitative Study on the Community Participation Experienc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Rural Area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2, No. 3, pp. 219-245, Aug. 2010.

저 자 소 개



이 형 하

2004: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현 재: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정책, 다문화복지

Email : hhlee62@kwu.ac.kr